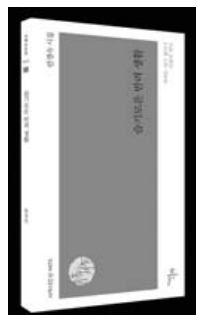


인간 경계 넘어, 사라지는 존재와 함께 사는 법

새로 나온 책

한경숙 시인, 두 번째 시집 ‘슬기로운 반려 생활’ 출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깊이 연루됐다.”

한경숙(사진) 시인은 사라지는 것들을 쉽게 위로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는다. 단지

사라지는 존재들의 곁에서 오래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슬픔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전한다.

한 시인의 시집 ‘슬기로운 반려 생활’(천년의시작)이 시작시인선 0573번으로 출간됐다.

첫 시집 ‘나는 다른 행성에 있다’ 이후 두 번째 저서로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동물과 식물, 바다와 돌, 빙하를 비롯해 일상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조명한다.

한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반려’라는 말의 의미를 반려동물에 한정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뿐 아니라 돌과 바다, 식물과 빙하, 나아가 도어락과 로봇청소기, 비닐봉지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까지도 우리의 삶

동·식물, 일상의 사물에 이르기까지

관계 맺는 다양한 존재 ‘반려’ 표현

일곱 살 무렵 섬을 찾는 기억서 출발

만남·헤어짐 상실 아닌 동행으로 구현

과 연결돼 있다면 ‘반려’의 범주 안에 넣었다.

그에게 시를 쓰는 일은 오래전부터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받아 적는 일이었다. 일곱 살 무렵 배를 타고 섬을 건너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섬을 찾아다녔던 기억은 이번 시집에서도 중요한 이미지로 이어진다. 사람을 만나고 계절을 보내며 어떤 존재와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건너는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 한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사라짐은 이번 시집에서 상실이나 슬픔에 머물지 않는다. 한 시인은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사라지는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오래 들여다본다.

이번 시집은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과 사물에서 출발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본다. 우리가 버린 것들이 결국 다시 우리의 몸으로 돌아오고, 인간이 훼손한 바다와 숲의 아름다움 역시 우리의 삶



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조금씩 허무는 것에 주목한다.

표제시 ‘슬기로운 반려 생활’은 이러한 시집의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문득, 나는 동물이었다는 걸 안다”고 말하는 한 시인은 누군가를 돌보는 관계를 넘어 그 존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자신 또한 이전과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순간을 직시한다.

한 시인에게 ‘반려’란 상대를 소유하거나 내 곁에 두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자신도 조금씩 달라지는 관계를 의미

한다. 표제의 ‘슬기로운’이라는 말 역시 사라지고 상처받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다정하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한경숙 시인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면서 “사라지는 존재들의 곁에서 슬픔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슬픔과 함께 잠시 머무는 것이 이번 시집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시인은 2019년 ‘딩하돌이’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나는 다른 행성에 있다’가 있다.

/오복기자

붉은 산하 묻어둔 통곡, 펜 끝으로 복원 ‘야만의 연대기’

한상희 작가, 대하역사소설 ‘어느 혁명가의 비애’·‘가마골’ 동시 출간

30년 공직 내려놓고 현대사의 피·사랑 되살린 늦깎이 대가의 초상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이념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고, 거대한 이념의 충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붉은 산하에 묻어둔 통곡을 펜끝으로 복원한 ‘야만의 연대기’가 나왔다. 담양 출신 한상희(사진) 작가는 대하 역사소설 ‘어느 혁명가의 비애’와 ‘가마골’ (조인출판사)을 동시에

펴냈다. 7·8년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공을 들인 작품이다.

두 소설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서로 다른 시선에서 바라봤다.

‘어느 혁명가의 비애’는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해방 이후 북한 권력의 중심에 섰고 끝내 숙청된 박헌영의 일대기를 그렸다. 저자는 그를 역사 속 정치인이 아닌 사랑하고 좌절했던 한 인간으로 풀어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신분적 굴레, 일제의 고문과 투옥, 아내 주세죽과의 이별 등이



서사를 이끈다.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광인 행세를 했던 일화부터 모스크바에서 주세죽과 김단야의 재혼 소식을 접한 순간, 첫 사랑 현미옥과의 인연까지 개인의 삶에 드러난 시대의 그림자를 전한다.

‘가마골’은 작가의 고향인 담양이 무대다. 영산강 시원지인 가마골은 6·25전쟁 당시 군경 토벌대와 빨치산이 맞부딪힌 격전지였다. 소설은 전쟁과 이념 대립 속에서 삶의 터전

을 잃고 희생된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담양 국(鞠)씨 가문의 몰락을 중심으로 위장 승려 한산과 국승순의 사랑, 저격수로 전장터를 떠도는 소녀 ‘번개탄’ 김종순 등의 삶이 펼쳐진다. 거대한 역사 속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와 사랑, 상실을 조명했다.

한상희작가는 “역사는 죽어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미래”라며 “젊은 세대가 낡은 이념 대립과 진영 논리의 뒷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공관대 영문과를 졸업한 한 작가는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다 직장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30여년간 중앙부처 공직(3급)과 국책연구원 생활을 거쳐 퇴임한 뒤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매달렸다. ‘겨울날의 환상 속에서’, ‘칼라스의 영육’, ‘평양 컨스퍼러시’, ‘순사’, ‘그을린 풍자’, ‘흰 스카프 소녀’, ‘고근의 이젤’ 등 저서를 꾸준히 펴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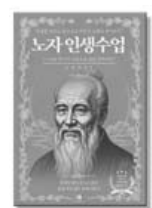
/오복기자



▲지도는 답을 알고 있다=아마사지 게이이치 저·노경아 역

세계사의 흐름을 기후와 지형, 자원 등 ‘지리’의 관점에서 읽어낸 책이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역사 유튜브 채널 ‘히스토리야 문디’를 운영하는 저자는 복잡한 세계사와 지정학을 지도와 함께 쉽게 풀어낸다. 알래스카는 어떻게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됐는지,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는 왜 유럽의 긴장 지대가 됐는지, 인도·파키스탄·중국은 왜 카슈미르에서 충돌하는지 등을 살핀다. 시대와 정치 체제는 변해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지리적 조건을 통해 전쟁과 교역, 국제 정세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윌북·1만9천800원



▲노자 인생수업=노자·조형권 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경쟁에 지친 현대인에게 노자의 지혜를 건넨다. ‘도덕경’의 사상을 오늘날의 언어와 일상적인 사례로 풀어낸 노자 입문서다. 무엇을 더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교하는 마음과 인정 욕구, 돈과 성공에 대한 조급함, 모든 것을 뜻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중심’, ‘비움’, ‘순리’, ‘낮춤’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살핀다. 앞서기 위해 애쓰기보다 때로는 늦추고 비우며 삶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에서 행복의 실마리를 찾는다.

/하이스트·1만8천800원



▲사라지는 일, 살아남는 사람=이찬지

인공지능(AI)이 일의 방식과 직업의 경계를 빠르게 바꾸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서울대 인재개발 전문가인 저자는 하나의 직업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대신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변화를 감지하는 힘(Sense), 사람을 이해하는 힘(Understand), 다시 배우는 힘(Rellearn), 가치를 만드는 힘(Value Creation), 연결하고 융합하는 힘(Integrate), 작게 실험하는 태도(Venture), 끝까지 버티는 힘(Endurance)을 제시한다. 앞글자를 따면 ‘SURVIVE’가 되는 7가지 힘이다.

/김영사·1만3천500원



▲빌런토막=유미경 저

살다 보면 피하기 어려운 다양한 색의 ‘빌런’을 유쾌하게 들여다본 에세이다. 결혼 계획을 깨문 친척부터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는 친구, 퇴근 직전 일을 건네는 상사까지 일상에서 만나는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타인뿐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자신, 일을 미루는 자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는 자신도 ‘빌런’ 목록에 올린다. 저자는 이들을 처단하거나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 대신 너무 휘둘러지도, 무조건 참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남을 향해 ‘왜 저래?’라고 욕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책의 묘미다.

/꿈공장플러스·1만8천300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